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천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 2개 기업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 1천 만개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는 절반에 달하는 490만개를 판매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압도적으로 많다. 애경은 172만개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2개 기업만 합쳐도 전체 가습기살균제 3분의 2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피해조정안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전국적으로 95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사망자만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회적 참사다.

2021년 3월 조사 당시 경상남도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578,324명이고, 건강 피해자는 61,602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혔다. 이중 경남지역의 피해신고는 3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8명, 생존자는 238명, 사망자 비율은 22%이다. 그리고 피해구제 인정자는 192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45명으로 인정률은 63%이다. 경상남도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김해시는 63명(사망 8, 생존 55)으로 창원 다음의 두 번째로 많고 이중 피해구제 인정자는 46명(사망 6, 생존 40)이다. 양산시 피해 39명(사망 10, 생존 29)으로 김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중

피해구제 인정자는 25명(사망 5, 생존 20)이다.



<그림,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접수된 경상남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306 명의 18개 기초자치 시군별 신고 및 인정 현황 그래프>

옥시와 애경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피해조정안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옥시와 애경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범국민 불매운동을 통해 우리는 김해시, 양산시의 시민사회와 함께 옥시와 애경을 심판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폐질환 피해자 백만여 명이 속출한 생활용품 중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세계 최초의 환경 보건 사건으로 기록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를 다룬 ‘공기살인’이 4월 22일 개봉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다. 영화 관람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옥시와 애경에게 있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 받는 피해자 있음을 기억하는 김해와 양산의 시민 운동을 우리는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19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시민센터

□ 문의: 사공혜선 사무국장(양산, 010-3095-4025)

/ 정진영 사무차장(김해, 010-8227-5322)

➤ 피해조정안 관련 최근자료 링크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들은 무한책임져야한다\(2022.3.24.\)](#)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위한 조정안\(조정위원회, 2022.3.28.\)](#)
- [욕시의 잘못 열가지와 욕시불매운동\(2022.3.28.\)](#)
- [공정위의 애경 과대광고 과징금부과 합법이라는 대법원판단\(2022.4.10\)](#)
- [애경의 잘못 열가지와 애경불매운동\(2022.4.11\)](#)
- [욕시영국본사 나라시만 사장과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2022.4.12\)](#)

